

『平家物語』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

-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Clothing and Textiles Recorded in 「Heikemonokatory(平家物語)」-

문 광 희(동의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본 연구는 일본에서 1131년부터 1198년까지의 약 70년 사이에 쓰여진 平家物語를 대상으로 그 속에 묘사된 복식에 관한 자료를 연구 분석한 것이다. 역사적 배경은 平安時代 말기로서 이후 계속되는 鎌倉·室町時代와 함께 대표적인 武人政權時代의 시발점이었다. 대상이 되는 자료는 남자의 의복과 장신구 36종, 여자의 의복과 장신구 6종이고, 색채와 직물은 각각 10종, 6종으로서, 특징적인 것은 남자의 복식자료가 월등히 많았다.

연구된 결과 및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의복과 장신구 :

1) 武家社會의 형성과 아울러 武士에게 맞는 양식인 鎧 혹은 腹卷, 甲과 緞가 다양하고 화려하게 발달되어 있었고, 鎧 아래에는 鎧直垂를 입었고 貫을 신었다.

활(弓)과 화살(矢)에 장식을 다양하게 하였고 칼(刀)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다.

2) 僧兵이 활약한 시기로 그들은 머리를 깎고 小袖, 葛袴에 腹卷과 素絹을 입었으며 袈裟를 들렀다. 黑漆太刀를 찻고 刀(長刀)를 들었으며 高足太나 平足を 신었다. 이들은 裏頭라고도 불렀다.

3) 남자의 복식 종류로는 烏帽子를 비롯하여 束帶, 狩衣, 布衣, 淨衣, 直衣, 水干, 指貫 등 이 있었다. 烏帽子和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으로 烏帽子子和 烏帽子親이 있었는데 이 것은 武士가 元服할 때 被服

者和 加服者를 각각 가리켰다.

4) 어린 남자 아이들은 단발머리를 하기도 했고, 平家の 자손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빨 을 검게 칠하는 습성이 있었다.

5) 여자 복장에서 부인들은 외출 시에 머리에 衣를 쓰기도 했고 市女笠을 썼다. 唐衣, 五衣, 二衣, 領布 등은 奈良時代 때부터 있었던 유습으로 큰 변화 없이 사용되었고, 女僧 의 옷 혹은 喪服으로서 麻衣가 있었다.

2. 색 채

색명의 종류는 많지 않아 다양한 색조의 현상을 볼 수 없었고, 특이한 것은 褐色이 濃紺色으로서 勝과 그 음이 통하여 鎧直垂의 색으로서 애용되었다.

그외 鎧의 緞에 사용되는 재료를 화려하게 염색하기도 했다.

3. 직 물

직물면에서 역시 다양한 종류를 볼 수는 없었다. 綾의 종류로는 魚綾과 唐綾이 있었고, 絹에는 長絹이라 하여 광택이 있는 견직물이 있었다. 당시 직물의 특징적인 것으로서는, 위사는 갓물에 삶아 부드럽게 만들고 경사는 생사를 그대로 사용하여 직조한 練貫이 있었다.